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325

Updated November 17, 2020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6
- BC Sales Report	
Tankers	10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4
Key Indicators	17
STL News & Information	19
Contact Information	20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ISSUE & TREND

1. 세계 최대 규모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출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으로, 협정 참가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 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가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가입국 간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이점도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면서 "RCEP는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참가국들은 또 'RCEP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 각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CEP가 발효되려면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국내 비준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뒤 발효된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RCEP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언문에는 추가적 시장개방과 전반적인 무역규범 정비가 참가국들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평가도 담겼다. 청와대는 "제협력 강화, 한국 산업의 고도화 등을 모색해 코로나 극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남방정책 가속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 . ISSUE & TREND

이번 협정 서명에 앞서 참가국들은 2011년 11월 RCEP 추진을 공식화하고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RCEP가 최종 서명됨에 따라 수산분야 협상도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협상은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 민감 수산물에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체결했던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중국과는 추가 시장 개방 없이 기존 FTA(2015년 발효)와 동일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일본의 경우 2017~2019년 평균 총수입액(1억 4200만 달러)의 2.9%(400만 달러), 총수출액(7억 5400만 달러)의 4.1%(3100만 달러) 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했다. 또 돔 가리비 방어 등 민감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

아세안-베트남의 경우 추가 수입 개방은 최소화하는 한편, 수출 기회는 늘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2017~2019년 평균 총수입액(3억 2600만 달러)의 1.6%(500만 달러), 총수출액(2억 9700만 달러)의 97.9%(2억 91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다.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하는 가다랑어(냉동)·김(건조)·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됐던 관세 5%는 RCEP 발효 즉시 면세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2017~2019년 평균 총수입액(8억 100만 달러)의 0.4%(3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고, 총수출액(1억 3200만 달러)의 100%가 이미 기존 FTA로 개방돼 추가 협상은 없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RCEP 체결에 따라 국내 민감 수산물은 수입 확대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 中 국유 석탄업체, 10억위안 채권 디폴트... '빙산의 일각'

중국 허난성 소재 국유 석탄업체가 10억위안 규모의 채권을 디폴트내면서 막대한 부채 부담을 지고 있는 모회사까지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차이신이 11일 보도했다. 용청석탄전기지주회사는 지난 10일 상하이청산소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만기를 맞은 초단기 채권의 상환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중순에 발행된 것으로 표면이자율은 4.39%였다. 매체는 이번 디폴트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연말까지 업체가 상환해야 하는 채권이 120억위안에 달하기 때문이다.

I . ISSUE & TREND

모회사인 허난에너지 케미컬인더스트리그룹의 경우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229 억위안에 달한다. 올해 중반 기준 해당 업체의 총부채는 이것의 10 배 규모이다. 업체는 자산규모 기준으로 허난성 최대 국유기업이다. 중국의 석탄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큰 충격을 받았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 월부터 9 월까지 석탄업계의 이익은 전년대비 30.1% 감소했다. 용청석탄은 연료처리 사업도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산업의 이익은 같은 기간 66.2%나 줄었다.

중국의 신용평가사인 청신국제신용평가는 디폴트 이후 용청석탄과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BB'로 하향 조정했다. 청신국제는 용청석탄의 디폴트가 허난에너지케미컬의 대외 재무 여건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모회사의 유동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허난에너지케미컬은 18 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난 8 월 기준 부채는 2 천 369 억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83%였다. 용청석탄의 경우 지난 9 월 기준 자산대비부채 비율은 77.8%였다.

3. 팬오션 韓선장 인도네시아서 옥중 편지..."한국말 잊을까 염려"

인도네시아에서 아홉 달 넘게 수감생활 중인 팬오션의 한국인 선장 박모(55)씨가 옥중 편지로 가석방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16 일 연합뉴스 특파원은 벌크화물선 팬베고니아(PAN BEGONIA)호의 박 선장이 인도네시아 까리문 교도소에서 지인들에게 발송한 이메일 여러 통을 전달받았다. 올해 2 월 14 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박 선장은 7 월에 징역 1 년이 확정된 뒤 독립기념일(8 월 17 일)을 맞아 1 개월 감형을 받고 가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박 선장은 이달 12 일 발송한 편지에 "새벽 4 시 반이면 독실한 무슬림의 기도 준비로 믿을 수 없는 소음이 발생한다. 귀를 막아보지만 소용이 없다"며 "한번은 기도 시간에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순간 싸늘해졌고,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깨달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한국말을 잊어버릴까 하는 염려와 워낙 말을 못 해서 생긴 증상이니 이해 바란다"고 현재 심정을 전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을 '무덥고 불결한 적도지방 교도소'라고 표현했다.

I . ISSUE & TREND

팬베고니아호는 작년 10 월 말 용선계약에 따라 솔라웨시섬 포말라항에서 니켈을 싣고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니켈 광산들이 출항 직전 갑자기 니켈 원광 수출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발이 묶였다. 중국의 니켈 구매자와 인도네시아 공급자 간 이해 충돌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를 넘겼고, 팬베고니아호는 올해 2 월 니켈 원광을 실은 채 싱가포르로 출항했다가 붙잡혔다.

팬오션 측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대폭 강화했기에, 이를 어기지 않고자 싱가포르에 가서 저유황 연료를 싣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 선장은 회사의 지시에 따랐음에도 홀로 수형 생활을 하는 점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다.

그는 이달 14 일 발송한 편지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나의 감성은 무시당하다 못해 철저히 소외된 것 같다", 15 일 편지에는 "통신이 활발하지 않던 시대에는 특별한 경우 선장이 목적지를 정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현재 박 선장이 바라는 점은 하루라도 빨리 가석방되는 것이다. 그는 "징역 1 년 형의 경우 9 개월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해 조기 출소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며 "감형 1 개월을 포함해 10 월 10 일 자로 가석방이 가능해졌음에도 같은 달 22 일에서야 가석방 서류가 접수됐고 이후 절차가 지체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일반적인 인도네시아 수형자는 가석방 절차를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한다고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나는 변호사 조력을 받음에도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외국인이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도움을 청했다.

박 선장이 가석방 되려면 형기가 끝날 때까지 인도네시아에 머무를 주소지가 명확하고, 신원 보증을 토대로 비자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가석방이 늦어진다는 분석도 현지에서 나온다. 한국 대사관은 10 월 10 일 이전에 미리 "가석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까리문 교도소 등에 공문을 보냈고, 현재 이민청과 접촉 중이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는 최근 4 천~5 천명을 오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코로나 19 사태 발생 후 전국 교도소에서 형량의 3분의 2 를 복역한 수용자 5 만 명을 순차 가석방하고 있다.

4. '날개 없는 추락' 환율, 1100 원선 진입...최저치 갈까

원화 가치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2년 5개월 만에 1100 원 선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신이 등장하면서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가 원화 등 위험자산 선호도를 높인 결과다.

I . ISSUE & TREND

환차익 등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로 돌아온 영향도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저치인 1008 원 50 전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 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 원 90 전 내린(원화 가치 강세) 1107 원 70 전에 출발했다. 이후 낙폭을 줄여 1107~1108 원을 오가고 있다. 이대로 마감하면 종가 기준으로 2018 년 12 월 4 일(1105 원 30 전) 후 최저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 19 가 재확산되는 것은 물론 한국도 지난 13 일(205 명)과 14 일(208 명) 이를 연속 200 명대 확진자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백신이 보급 기대가 재확산 우려감을 덮으면서 원화 가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 대선 직후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퍼진 지난 5 일부터 13 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 조 2835 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날도 10 시 현재 외국인 600 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이 유입되는 것은 코로나 19 기대와, 환차익을 노린 심리가 작용했다. 여기에 수출 등 국내 주요지표가 나아진 것도 외국인이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11 월 1~10 일 수출액(통관기준)은 141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1% 늘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12.1%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환율 최저치인 2014 년 7 월 3 일(1008 원 50 전)까지 갈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당시 한국 성장률이 3.2%를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 속도에 따라 원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한국이 코로나 19 회복 속도가 빨라 원화 가치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당국 개입 등은 환율 흐름의 변수로 꼽힌다. 금융시장 급변동을 억제하고 수출 기업 실적을 방어하기 위해 당국이 환율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사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주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도 원화 강세를 억제할 요인이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KS:005930) 배당금을 인출해 달러로 환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원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많은 데다 11 월 이후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유지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중간배당과 관련한 외국인 역송금 우려로 이번주 환율은 1104~1118 원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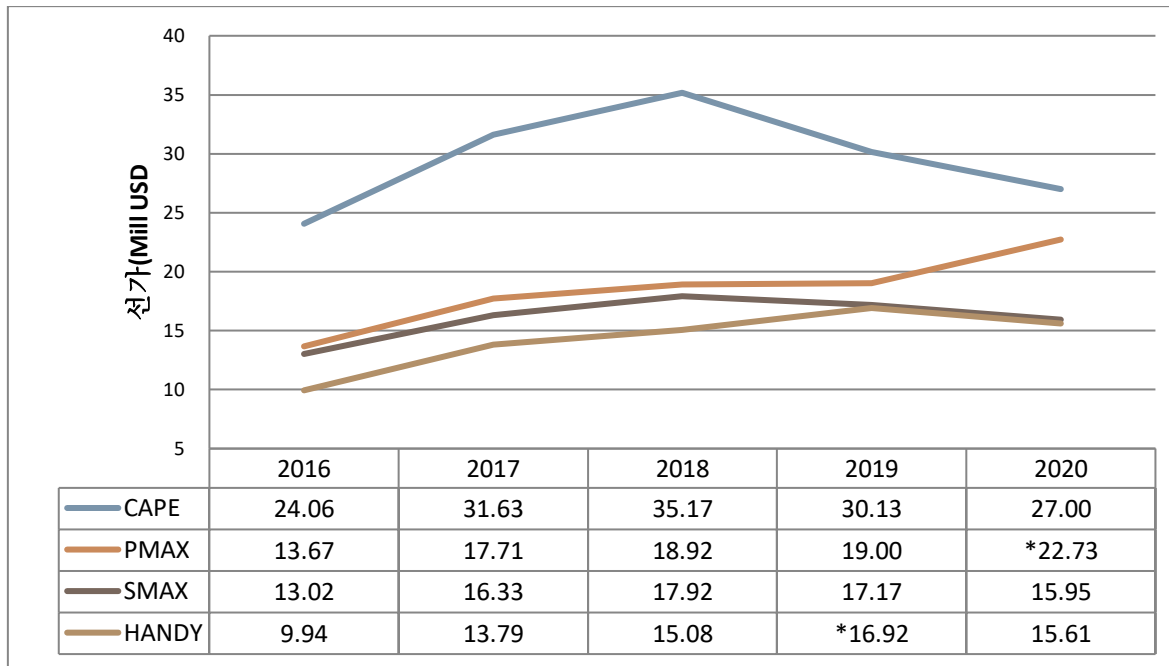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6	2017	2018	2019	2020
Capesize 180K	24.06	31.63	35.17	30.13	27.00
	-24.99%	31.43%	11.20%	-14.34%	-10.37%
Kamsarmax 82K	13.67	17.71	18.92	19.00	*22.73
*'19년까지는 76K 기준	-19.80%	29.57%	6.82%	0.42%	19.62%
Supramax 58K	13.02	16.33	17.92	17.17	15.95
	-16.91%	25.44%	9.69%	-4.20%	-7.06%
Handysize 37K	9.94	13.79	15.08	*16.92	15.61
*'18년까지는 32K 기준	-23.32%	38.78%	9.37%	12.18%	-7.70%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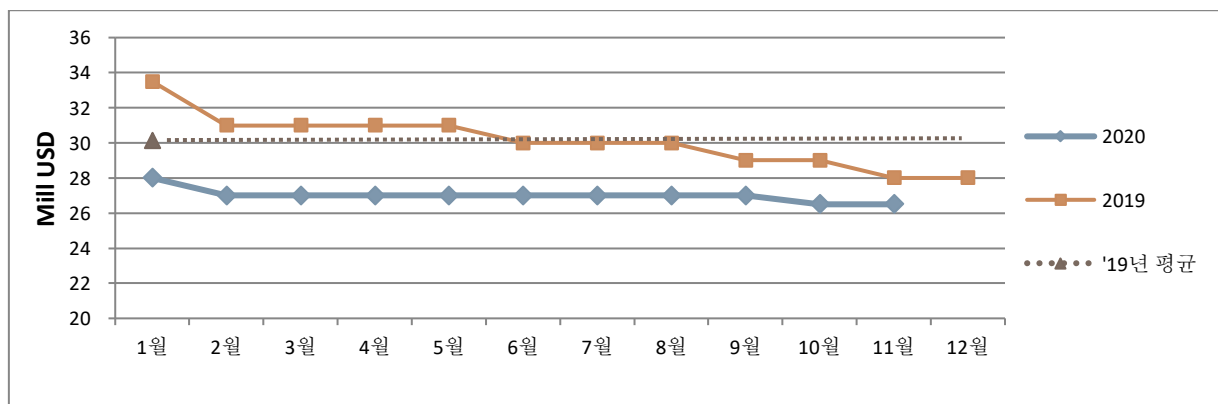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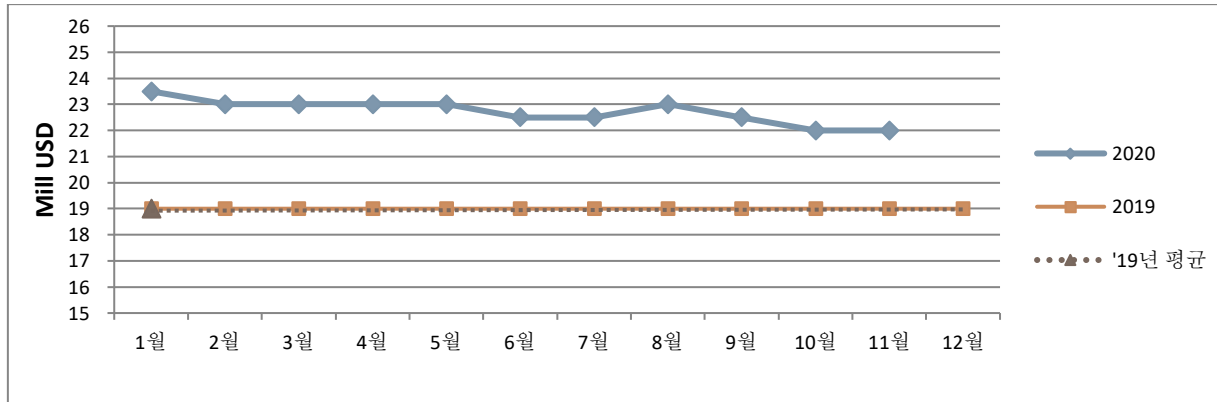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0	CAPE 180K	선가	28.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6.50	26.50		27.00
		전월대비	0.0%	-3.6%	0.0%	0.0%	0.0%	0.0%	0.0%	0.0%	0.0%	-1.9%	0.0%		-
		전년대비	16.4%	12.9%	12.9%	12.9%	12.9%	10.0%	10.0%	10.0%	-6.9%	-8.6%	-5.4%		10.4%
	KMAX 82K	선가	23.50	23.00	23.00	23.00	23.00	22.50	22.50	23.00	22.50	22.00	22.00		22.73
		전월대비	23.7%	-2.1%	0.0%	0.0%	0.0%	-2.2%	0.0%	2.2%	-2.2%	-2.2%	0.0%		-
		전년대비	23.7%	21.1%	21.1%	21.1%	21.1%	18.4%	18.4%	21.1%	18.4%	15.8%	15.8%		19.6%
	SMAX 58K	선가	17.00	16.50	16.50	16.50	16.00	15.50	15.50	15.50	15.50	15.50	15.50		15.95
		전월대비	0.0%	-2.9%	0.0%	0.0%	-3.0%	-3.1%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5.6%	-2.9%	-2.9%	-2.9%	-5.9%	-8.8%	-8.8%	11.4%	11.4%	-8.8%	-8.8%		-7.1%
	HA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17.00	15.50	15.00	14.50	14.50	14.75	14.75	14.75		15.61
		전월대비	3.0%	0.0%	0.0%	0.0%	-8.8%	-3.2%	-3.3%	0.0%	1.7%	0.0%	0.0%		-
		전년대비	0.0%	0.0%	0.0%	0.0%	-8.8%	11.8%	14.7%	14.7%	13.2%	13.2%	10.6%		-7.7%
2019	CAPE	33.50	31.00	31.00	31.00	31.00	30.00	30.00	30.00	29.00	29.00	29.00	28.00		28.00
	PMAX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SMAX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50	17.50	17.00	17.00	17.00		17.00
	HANDY (37k)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6.50		16.50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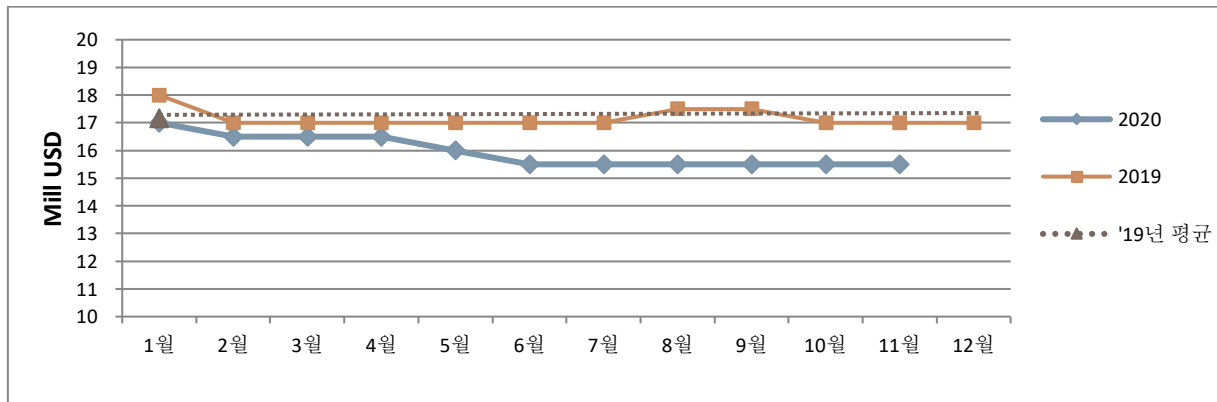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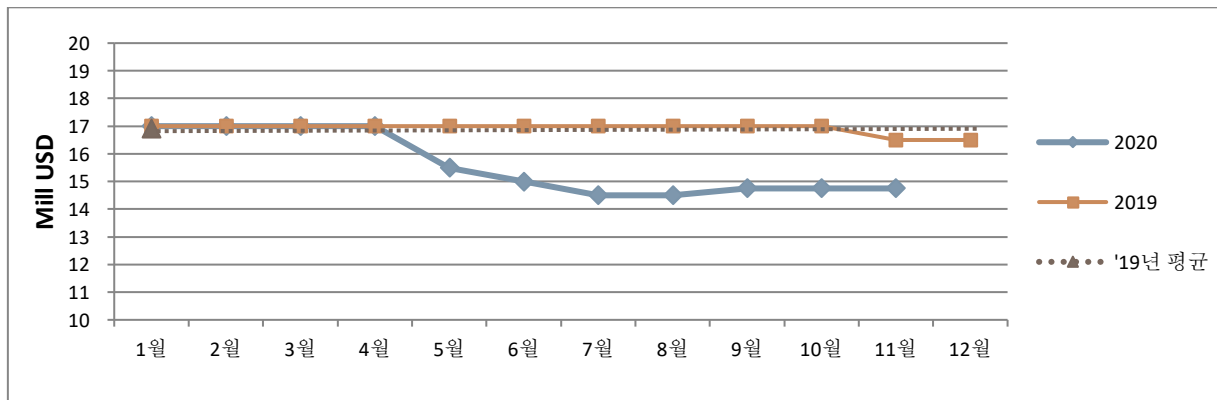
□ Kamsarmax *'19년까지는 76K 기준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LEVANTO	73,926	2001	CHINA	B&W		5.5-5.6	Undisclosed buyer
BC	KASTRO	58,780	2008	CHINA	B&W	C 4x30t	8.6	Undisclosed buyer
BC	KAVO PLATANOS	56,750	2012	CHINA	B&W	C 4x30t	9.5	Chinese buyer
BC	PORT CANTON	56,737	2012	CHINA	B&W	C 4x30t	9.5	
BC	PORT HAINAN	56,737	2012	CHINA	B&W	C 4x30t	9.5	Chinese buyer
BC	PORT DALIAN	56,737	2012	CHINA	B&W	C 4x30t	9.5	
BC	LALIS D	55,648	2011	VIETNAM	B&W	C 4x30t	9.4-9.5	Chinese buyer
BC	BALTIC PANTHER	53,350	2009	CHINA	B&W	C 4x35t	7.5	Undisclosed buyer
BC	NITON COBALT	52,471	2004	JAPAN	B&W	C 4x30t	6.7-6.9	Undisclosed buyer
BC	LENTIKIA	39,202	2015	CHINA	B&W	C 4x36t	13.8	Norway buyer, BWTS Fitted
BC	FOOLS GOLD	28,346	2010	JAPAN	B&W	C 4x36t	6.4	Greek buyer
BC	ASIA ENERGY	28,107	2001	CHINA	SULZ	C 4x40t	3.3	Greek buyer
BC	NORD SINCERE	28,050	2008	JAPAN	B&W	C 4x30.5t	6.6	Undisclosed buyer
BC	SEXTA	18,367	2000	KOREA	B&W	C 3x30t	1.7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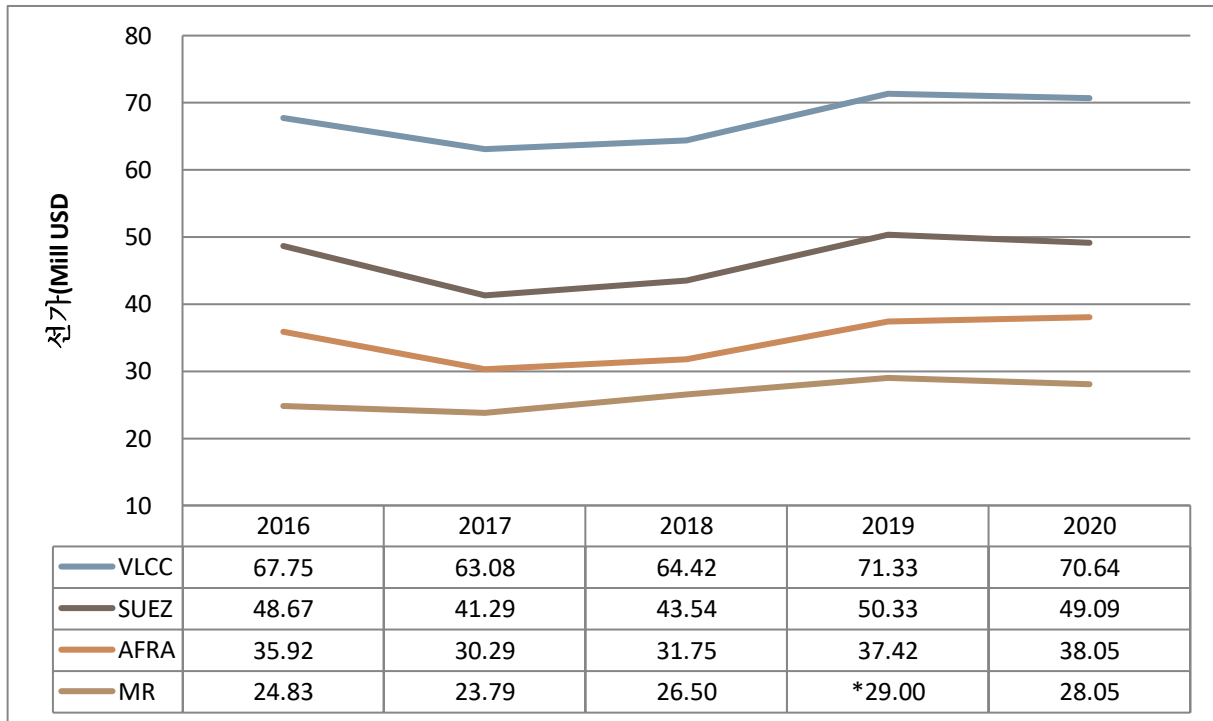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VLCC 310K	67.75	63.08	64.42	71.33	70.64
	-16.15%	-6.89%	2.11%	10.73%	-0.98%
Suezmax 160K	48.67	41.29	43.54	50.33	49.09
	-18.34%	-15.15%	5.45%	15.60%	-2.47%
Aframax 105K	35.92	30.29	31.75	37.42	38.05
	-21.24%	-15.66%	4.81%	17.85%	1.68%
MR 51K <small>*18년까지는 49K 기준</small>	24.83	23.79	26.50	*29.00	28.05
	-10.35%	-4.19%	11.38%	9.43%	-3.29%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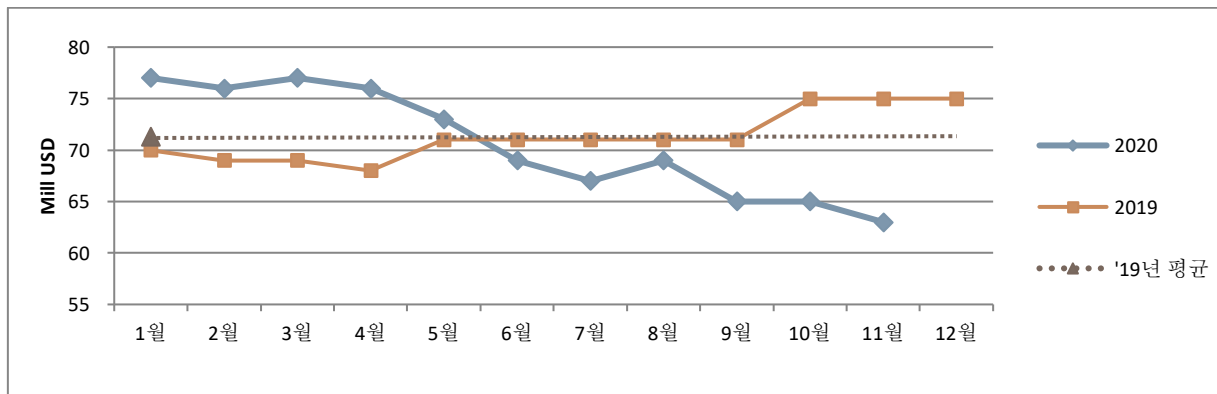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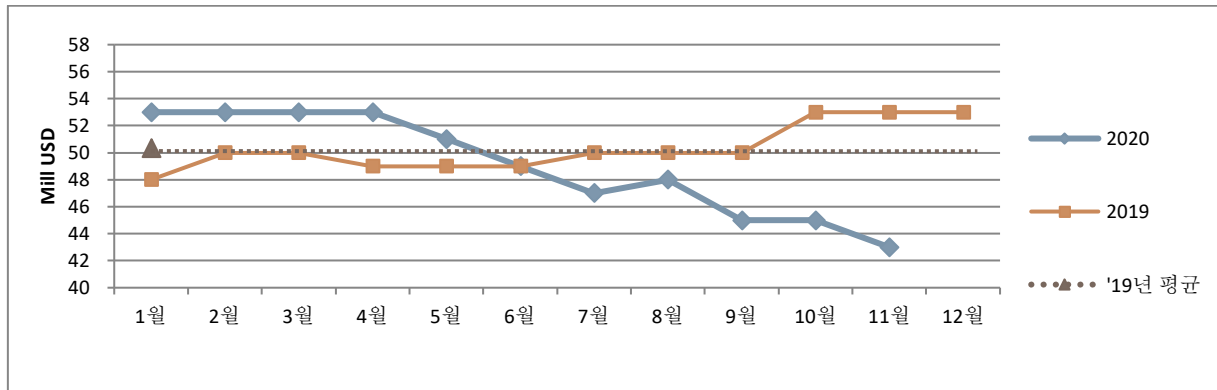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0	VLCC 310K	선가	77.00	76.00	77.00	76.00	73.00	69.00	67.00	69.00	65.00	65.00	63.00		70.64
		전월대비	2.7%	-1.3%	1.3%	-1.3%	-3.9%	-5.5%	-2.9%	3.0%	-5.8%	0.0%	-3.1%		-
		전년대비	10.0%	10.1%	11.6%	11.8%	2.8%	-2.8%	-5.6%	-2.8%	-8.5%	-	13.3%	16.0%	
	SUEZ 160K	선가	53.00	53.00	53.00	53.00	51.00	49.00	47.00	48.00	45.00	45.00	43.00		49.09
		전월대비	0.0%	0.0%	0.0%	0.0%	-3.8%	-3.9%	-4.1%	2.1%	-6.3%	0.0%	-4.4%		-
		전년대비	10.4%	6.0%	6.0%	8.2%	4.1%	0.0%	-6.0%	-4.0%	-	10.0%	15.1%	18.9%	
	AFRA 105K	선가	41.00	42.50	42.50	42.50	40.00	37.50	36.00	36.00	35.00	33.00	32.50		38.05
		전월대비	0.0%	3.7%	0.0%	0.0%	-5.9%	-6.3%	-4.0%	0.0%	-2.8%	-5.7%	-1.5%		-
		전년대비	17.1%	21.4%	21.4%	21.4%	14.3%	1.4%	-5.3%	-5.3%	-7.9%	-	19.5%	20.7%	
	MR 51K	선가	30.00	31.00	31.00	30.00	28.00	27.50	26.50	26.50	26.00	26.00	26.00		28.05
		전월대비	0.0%	3.3%	0.0%	-3.2%	-6.7%	-1.8%	-3.6%	0.0%	-1.9%	0.0%	0.0%		-
		전년대비	7.1%	10.7%	10.7%	7.1%	0.0%	-5.2%	-	11.7%	11.7%	10.3%	13.3%	13.3%	
2019	VLCC	70.00	69.00	69.00	68.00	71.00	71.00	71.00	71.00	71.00	75.00	75.00	75.00		71.33
	SUEZ	48.00	50.00	50.00	49.00	49.00	49.00	50.00	50.00	50.00	53.00	53.00	53.00		50.33
	AFRA	35.00	35.00	35.00	35.00	35.00	37.00	38.00	38.00	38.00	41.00	41.00	41.00		37.42
	MR	28.00	28.00	28.00	28.00	28.00	29.00	30.00	30.00	29.00	30.00	30.00	30.00		29.00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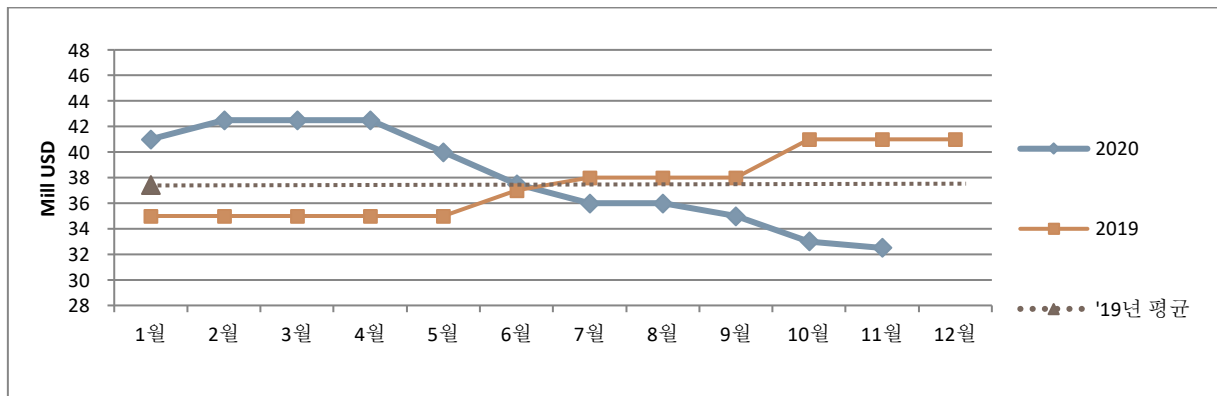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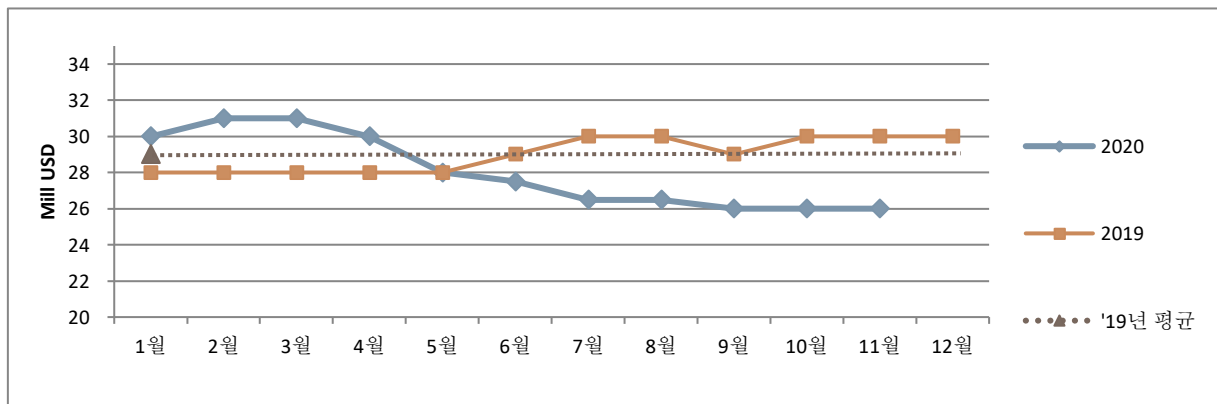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KALAMAS	105,391	2011	JAPAN	B&W		22-22.7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SS Passed
OIL/CHEM	STENA CONQUEST	47,136	2003	CROATIA	B&W	2	9.15-9.3	Chinese buyer, SS Passed, BWTS fitted
OIL/CHEM	ATLANTIC QUEEN	46,838	2010	KOREA	B&W	3	16.3	Undisclosed buyer
OIL/CHEM	ATLANTIC PEGASUS	46,838	2010	KOREA	B&W	3	16.3	
OIL/CHEM	CHEMBULK JAKARTA (stst)	19,935	2009	JAPAN	MITSU	2&3	10.8	Vietnamese buyer, BWTS fitted
LPG	GAS BEAUTY I	55,361	1982	FINLAND	SULZ		12	Vietnamese buyer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CPO HAMBURG	103,800	2009	KOREA	B&W	8580	TEU	31	Greek buyer
CONT	CPO BREMEN	103,800	2009	KOREA	B&W	8580	TEU	31	
CONT	GREENWICH BRIDGE	71,270	2006	KOREA	B&W	5642	TEU	14.0	Swiss buyer(MSC)
CONT	HUGO SCHULTE	47,027	2010	CHINA	B&W	3635	TEU	25	Undisclosed buyer, SS/DD Passed
CONT	MARTHA SCHULTE	46,925	2012	CHINA	B&W	3635	TEU	22	
CONT	BOMAR HERMES	34,500	2006	GERMANY	B&W	2496	TEU	6-6.7	Swiss buyer(MSC)
CONT	KARIN RAMBOW	13,807	2005	CHINA	MAN	1118	TEU	2.2	Asian buyer
CONT	CONTSHP BOX	8,279	2008	CHINA	MAK	704	TEU	--	U.A.E. based (Star Feeders)
CONT	CONTSHP DAY (sd)	8,200	2007	CHINA	MAK	704	TE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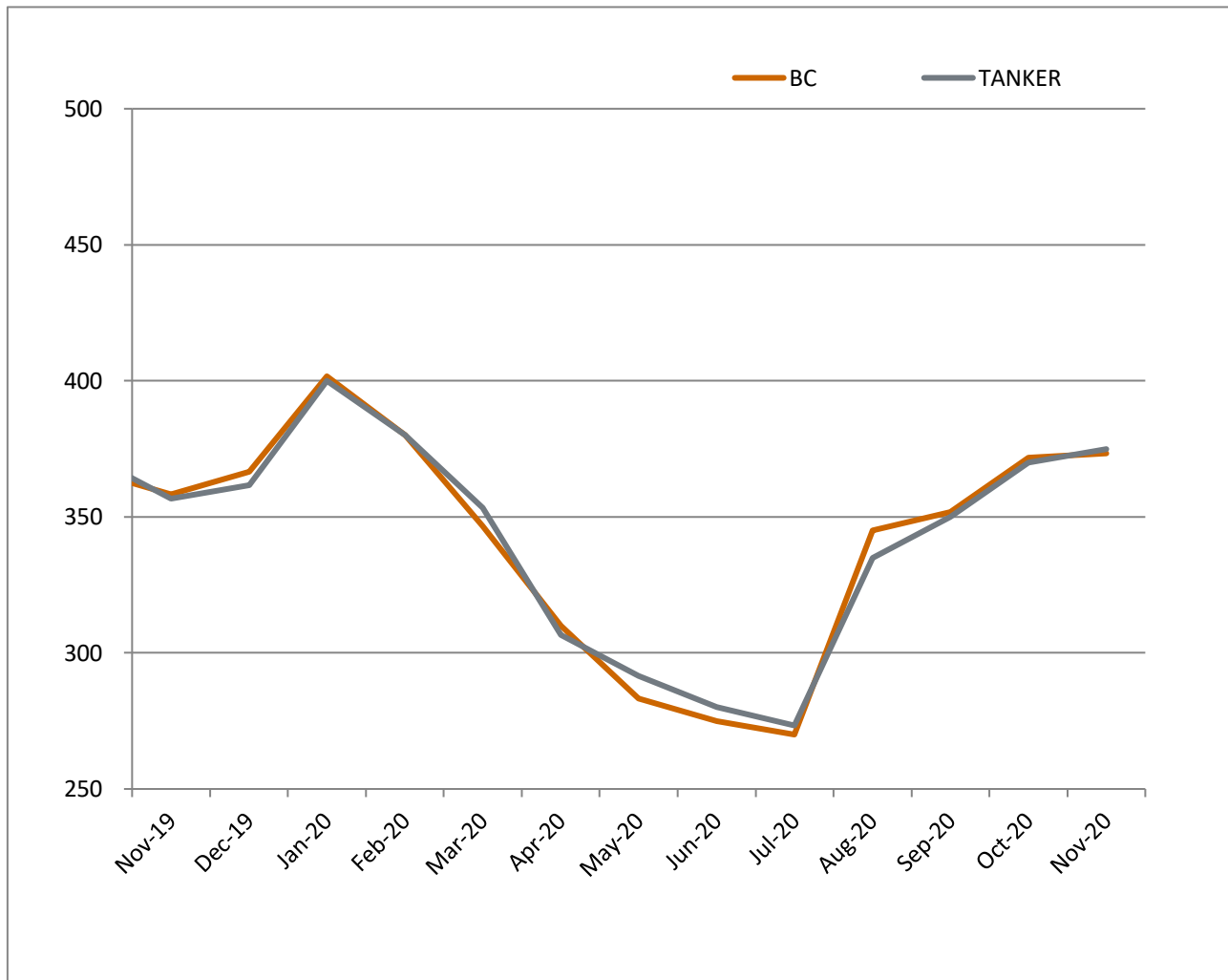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8 평균		2019 평균		2020 평균		2019 년 11 월	2020 년 11 월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TANKER	432.92	18.5%	396.39	-8.4%	337.73	-14.8%	356.67	375.00	1.4%	5.1%
BC	440.63	18.8%	398.75	-9.5%	337.12	-15.5%	358.33	373.33	0.4%	4.2%

❖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률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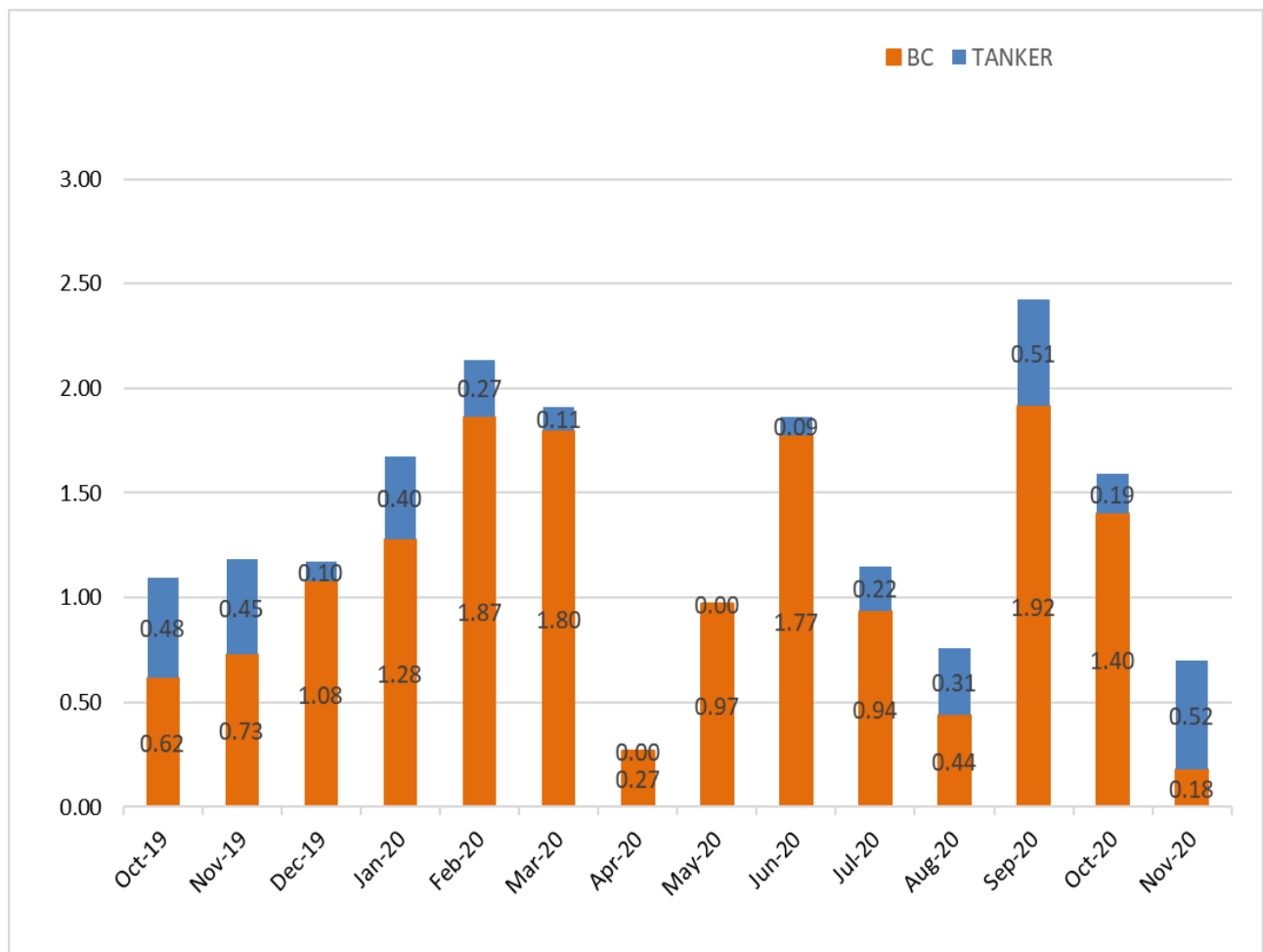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9 년		2020 년 누적				2019 년 11 월		2020 년 11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률 (전년대비)	No.	증감률 (전년대비)
TANKER	3.54	97	2.62	74.2%	77	79.4%	0.45	11	0.52	14.6%	9	-18.2%
BC	7.45	116	12.82	172.2%	132	113.8%	0.73	10	0.18	-75.5%	5	-50.0%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 -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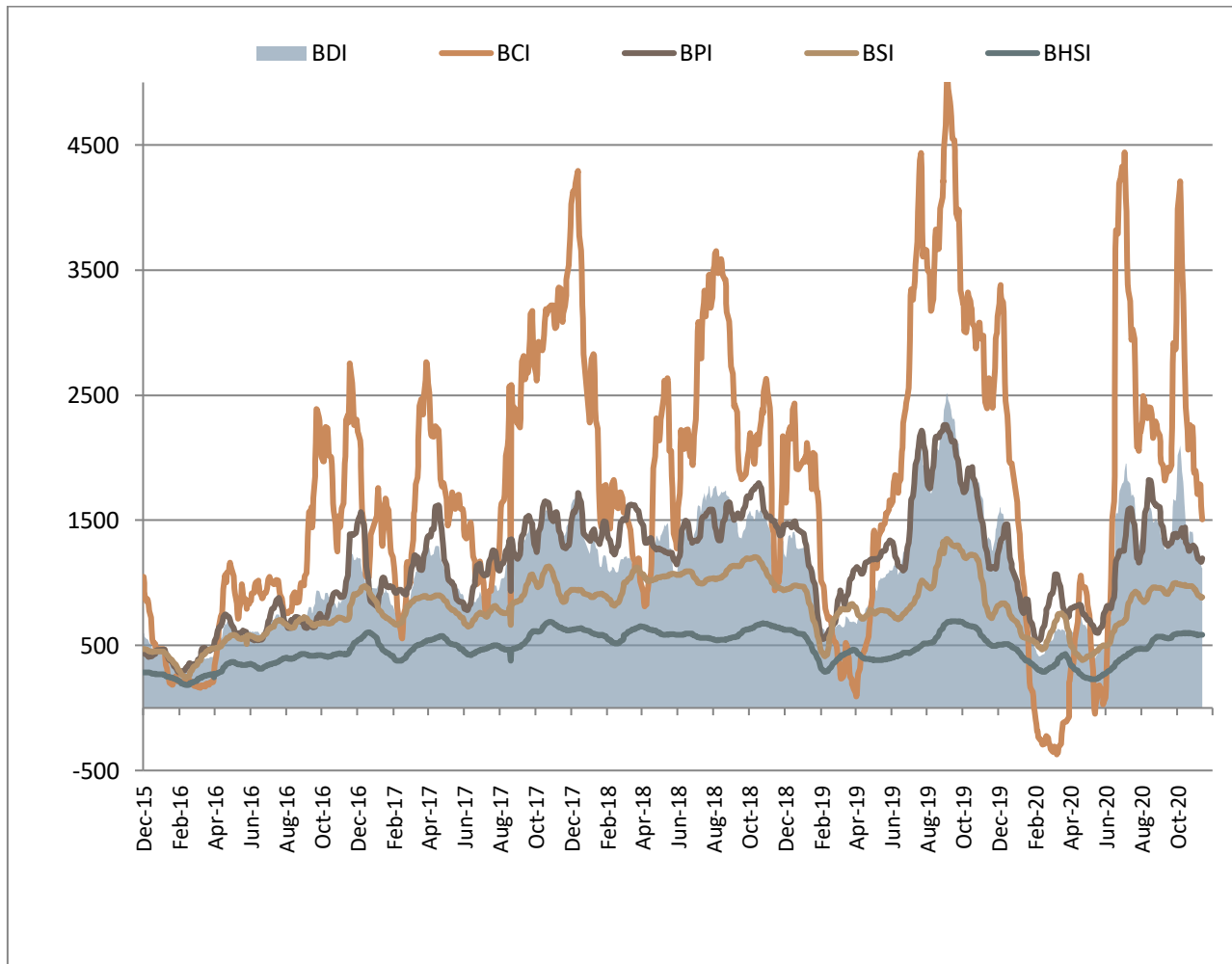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GC	PAC ACRUX (triple deck)	27,420	10,626	2003	CHINA	B&W	393	PAKISTAN
MPP	MAKO	9,595	3,668	1991	JAPAN	HANSH	370	PAKISTAN
TANKER	SAM	300,482	42,515	1996	KOREA	B&W	365	PAKISTAN
TANKER	NEW PAROS	107,181	16,696	1998	JAPAN	B&W	408	PAKISTAN
TANKER	PROJECT LINK	45,100	8,872	1989	KOREA	B&W	385	BANGLADESH
TANKER	TARGET	13,011	4,989	1985	SWEDEN	WART	390	PAKISTAN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0-11-13	2020-11-06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115	1196	▼-81.00	2518	290
BCI	1507	1739	▼-232.00	5043	-372
BPI	1198	1190	▲8.00	2262	282
BSI	884	901	▼-17.00	1351	243
BHSI	586	583	▲3.00	692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52.50	▲13.50	328.00	▲19.00	330.50	▲28.50
MGO	386.00	▲34.50	363.00	▲29.50	398.00	▲33.50
LSMGO	367.00	▲22.00	356.50	▲25.00	-	-
VLSFO	304.50	▲21.00	272.50	▲9.50	272.50	▲17.50

❖ 기준일 : 11 월 13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0-11-13	2020-11-06	CHANGE
미국 달러	1113.20	1130.90	▼-17.70
일본 엔(100)	1059.53	1091.66	▼-32.13
유로	1314.41	1337.18	▼-22.77
중국 위안	168.32	170.17	▼-1.85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상식] 0.5 인 가구

0.5 인 가구는 2 곳 이상에 거처를 두거나 잦은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1 인 가구를 이르는 말로, 1 인 가구보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더 짧은 이들을 가리킨다. 예컨대 평일에는 출퇴근 등의 이유로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지내다가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주말만 되면 여행이나 낚시·등산 등의 야외 활동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0.5 인 가구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존 1 인 가구보다 더 작은 평수의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구·가전 역시 기존 1 인용보다 더 작고 간편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이에 기존 1 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품보다 더 작고 간소화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관련기사] 0.5 인 가구

기존 '1 인 가구'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짧은 마이크로 싱글족. 여행이나 출장이 잦아 두 곳 이상에 거처를 두거나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싱글족을 일컫는다. 평소에는 직장 근처에 방을 얻어 살다가 주말에는 가족들의 거처로 이동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1 인 가구는 지난 2017 년 28.7%인 561 만 가구로 늘었다. 2000 년 226 만 가구로 총인구의 15.6%에 불과했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1 인보다 더 작은 0.5 인 가구의 등장으로 기존 1 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솔로 이코노미'보다 더 세밀화되고 더 작은 사이즈로 판매하는 상품 시장을 의미하는 '하프 이코노미(HALF ECONOMY)'도 확대되고 있다. 또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수가 축소되면서 이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부동산 틈새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 그 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 월 기준 전국의 오피스텔 전용면적 40 m² 이하의 수익률은 5.01%에 달한다. 반면 40 m² 초과~60 m² 이하의 경우 4.55%, 60 m² 초과~85 m² 이하의 경우 3.98%에 불과했다. 85 m² 초과하는 면적의 수익률은 3.84%다.

[출처: 연합뉴스포맥스]



VI. STL NEWS &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Personal)

| **RESEARCH**

Anna Lee (이혜란 과장)
 Manager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Personal)

Mike Hong (홍창목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010-4855-8055
 snp@stlkorea.com
 mikehong@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070-4800-0153)
 |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070-4800-0151)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010-2777-4027)